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	보 도 자 료	(배포) 2017. 9. 29(금)
즉시 사용		
담당	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	지원 팀장 한영기, 사무관 이명희 (02-3148-0406, 0408)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상주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

- 한국형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소개 -

-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(위원장 김지형, 이하 ‘위원회’)는 9월29일(금) 오전 10시,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외신지원센터에서 상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
- 오늘 간담회는 AP, WSJ, NHK, 아사히 등 외신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,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여 진행됐습니다.
- 참석한 외신 기자들은 이번 공론조사의 특징, 시민참여단의 자세한 숙의과정, 최종 권고안이 갖는 의미, 위원회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위원장과 대변인의 심도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.
 - 또한 참석 기자들에게 시민참여단의 숙의자료집을 배포하여 건설 중단/재개 측이 주장하는 자세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
- 한편, 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“이번 공론화가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민주적 의사 결집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말했습니다.